

부르센샤프트(bursächy spolek) 토이토니아(Teutonia)의 결성과 활동

김장수(관동대 사학과 교수)

작성일 : 2014년 3월 16일

1817년 10월 18일 작센-바이마르-아이젠나흐(Sachsen-Weimar-Eisennach) 대공국의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서 부르센샤프트 축제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들이 표출되었고 안(Jahn)의 추종자들에 의해 반자유주의적인 서적들과 구제도의 상징물들이 소각되는 돌출적 상황도 초래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바르트부르크 축제에 대해 프라하(Praha) 대학의 학생들은 깊은 관심을 표방했고 나아가 이들은 부르센샤프트(bursächy spolek)의 결성 필요성도 인지하게 되었다.¹⁾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르센샤프트의 활동으로 메테르니히(Metternich) 체제(1815-1848)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생들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부르센샤프트를 가능한 한 빨리 결성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한 학생단체가 결성될 경우 학생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역시 사라지리라는 긍정적인 예견도 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볼차노(B. Bolzano) 역시 바르트부르크 축제가후부터 학생들에게 부르센샤프트의 결성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²⁾. 이 당시 볼차노 교수는 보헤미아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독일 민족과 체코 민족이 반드시 결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보헤미아주의(Böhmenismus)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겠다.³⁾ 이렇게 보헤미아주의를 부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볼차노 교수는 그러한 민족적 결속이 메테르니히 체제하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메테르니히 체제를 부정하고 그것의 타파를 공식적으로 밝힌 부르센샤프트의 활동에 대해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후부터 볼차노 교수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으로 구축된 부르센샤프트의 이상 및 목표를 나름대로 분석정리했고 거기서 부르센샤프트의 활동으로 기존 질서체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게다가 그는 부르센샤프트의 결성으로 학생들의 학문적 수준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그러한 자세는 부르센샤프트의 강령에서 학문증진의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 된데서 비롯된 것 같다. 점차적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볼차노 교수의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들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바르트부르크 축제 직후보다 높아졌다. 이후부터 볼차노 교수는 이들 학생들과 더불어 부르센샤프트결성에 필요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거기서 부르센샤프트의 명칭과 조합정관의 윤곽 및 토대도 마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들은 부르센샤프트의 명칭을 토이토니아(Teutonia)라 정했고 정관에서 다음의 것들을 명시하기로 했다.

첫째, 프라하 대학의 재학생들은 토이토니아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의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리고 동일인물의 재선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셋째, 의장은 정기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넷째, 메테르니히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섯째, 독일 여러 대학의 부르센샤프트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

여섯째, 부르센샤프트에 가입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 또는 임시회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학생이 탈퇴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혀야 한다.

1818년 4월 18일부터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토이토니아에는 약 50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정관에서 밝혔듯이 토이토니아의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펼쳐졌는데 그러한 것은 볼차노 교수와 토이토니아에 참여한 학생들이 빈(Wien) 중앙정부 및 프라하 지방정부가 그들 학생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존재를 제국 내에서 부각시킬 경우 관찰 및 탄압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토이토니아의 활동을 펼친 지 일주일도 안된 1818년 4월 21일 프라하 경찰은 프라하 대학의 학생들이 부르센샤프트를 비밀리에 결성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부터 이들은 토이토니아와 관련된 교수들과 학생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들은 적지 않은 프라하 대학의 학생들이 예나(Jena), 할레(Halle), 에어랑겐(Erlangen), 그리고 괴팅겐(Göttingen)에 머물면서 부르센샤프트의 이념과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⁴⁾ 또한 프라하 경찰은 독일의 여러 도시에 체류 중인 학생들 역시 그곳 대학의 부르센샤프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프라하 경찰은 4월 25일 빈 중앙정부에 '프라하의 부르센샤프트와 관련된 최근 학생운동 보고서(Berichte über die aktuelle Lage der Studentenbewegung in bezug auf die Burschenschaft in Prag)' 를 제출했다. 여기서 독일권에 체류했던 프라하 학생들이 그들 대학과 고향으로 돌아가 부르센샤프트의 설립목적 및 활동을 동료학생들에게 전달했다는 것과 이들이 동료학생들과 더불어 이미 결성된 부르센샤프트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메테르니히 체제의 문제점을 토론했면서 그러한 체제를 타파시킬 수 있는 대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이 당시 독일 대학의 학생들, 그중에서도 예나, 베를린(Berlin), 할레 대학의 학생들은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헤미아 지방의 학생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보헤미아 지방, 특히 프라하를 직접 방문하여 부르센샤프트의 기본목표와 활동지침을 설명하고 독일과 보헤미아 학생들이 긴밀한 접촉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프라하 학생들과의 접촉에서 메테르니히 체제가 독일 통합의 저해요소임을 강조했고 그것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협력 역시 절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여기서 토이토니아의 독일 회원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체코 회원들은 그 일부분만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즉 이들은 메테르니히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독일 민족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체코 회원들은 후자의 이유로 민족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부르센샤프트가 아직까지 그러한 문

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차이로 토이토니아는 그들의 행동반경을 조절해야만 했다. 즉 독일 학생들과 체코 학생들이 공조하기 위해서는 부르센샤프트 운동에서 독일의 통합부분을 배제시키거나 또는 이민족에 대한 배려를 독일통합에서 명문화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토이토니아의 집행부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활동에서 독일통합을 부각시킬 경우 체코 학생들의 이탈이 필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부르센샤프트 활동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이토니아는 독일통합의 당위성을 표방하게 되었고 그러한 노선결정은 이 대학생단체에 대한 체코 학생들의 관심 및 참여를 포기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후부터 체코 학생들은 토이토니아를 탈퇴하기 시작했고 이 부르센샤프트에 대한 그들의 관심 역시 크게 감소되었다.⁵⁾ 토이토니아로부터 체코 학생들이 이탈한 후 이 학생단체는 순수 독일 학생들의 조직체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독일권의 통합문제로 토이토니아를 탈퇴한 이후 체코 학생들은 앞으로 그들이 보헤미아 지방과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주력했다. 여기서 이들은 메테르니히 체제를 붕괴시켜야만 그들 민족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과 그러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인지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운동을 저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결성된 마티체 체스카(Maticе Česká)라는 독서협회에 적극적 참여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도 수행했다.

토이토니아의 활동에서 부각된 것들은 오늘날의 대학생 활동에서도 감지되는데 그것은 대학생들이 기존 질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도외시한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19세기의 대학생 운동에서도 지적되던 문제점이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제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종종 편파성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들이 현실적 상황보다는 이론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려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이러한 자세는 이들이 사회성원으로 살아나기는데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적·사회적 제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은 필요한데 그것은 대학생들의 순수한 관점이나 충정심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베를린 플라만(Plamann) 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안은 1811년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었던 피히테(Fichte)에게 기존의 지방 학생 단체(Landmannschaft)를 대신할 새로운 학생 단체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부르센샤프트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거기서 그는 학생들의 육체적 단련(körperliche Ertüchtigung), 민족 사상의 함양(Förderung des nationalen Gedankens), 그리고 개성의 강화(Stärkung des Charakters)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독일 통합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학생조직으로 그러한 것들을 실천시킬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특정 지역의 학생들로 구성된 지방 학생단체는 범세계주의적인 이념만을 지향했기 때문에 독일 통합이라는 이상구현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2) 1785년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난 이 인물은 프라하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상을 칸트(Kant)의 '비판서' 들을 공부하는데 할애하면서 수학자로서의 능력도 발휘했다. 1805년 볼차노는 수학교수가 되어야 할지 철학교수가 되어야 할지 결정을 못 한 상태였다. 신부직도 강한 매력으로 그를 끌어 당겼다. 같은 해 프라하 대학 철학부에 종교학 교수 자리가 신설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볼차노는 세 가지 전공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1805년 2

월 그는 수학 교수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4월에는 신부 서품을 받고 교목직도 인수했다. 이 당시 볼차노는 학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수로 존경을 받았고, 그가 매주 했던 설교에는 많은 청중들이 참석했다.

- 3) 볼차노는 자신이 행한 한 연설에서 보헤미아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보헤미아 지방이 유럽에서 가장 비옥하고, 중요한 지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된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신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보헤미아 사람들(독일인/ 체코인)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뿐만 아니라 미덕 및 숭고한 행위에서도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보헤미아 지방의 중요한 토양은 주변 민족들의 관심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탐욕대상이 되기도 했다. 보헤미아 지방을 이러한 관심 및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방내의 독일인들과 체코인들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4) 이렇게 프라하 대학의 학생들이 이들 대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들 대학의 부르센샤프트가 다른 대학들의 부르센샤프트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 5) 프라하 경찰은 1818년 5월초 토이토니아의 회원명단을 작성했다. 그것에 따르면 전체 회원에서 체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 (27 명/52 명)를 상회했다. 이러한 참여율은 부르센샤프트에 대한 체코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코 학생들의 이러한 참여율은 이후 급속히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독일통합에 대한 자신들의 기본적 시각이 독일학생들과 달랐기 때문이다.